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3년 12월 5일(수) 조간
담당자	황수경 KDI 서비스경제연구TF팀장 (02-958-4107, skhwang@kdi.re.kr)
배포일시	2013년 12월 4일(수) 09:3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2-958-4030, press@kdi.re.kr)

서비스경제브리프(2013년 4/4분기) 요약

- 서비스경제브리프(2013년 4/4분기)에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주제로 이슈분석 및 특집을 다룸.
 - ‘이슈분석’에는 ‘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기술혁신’(김기완 KDI 연구위원)과 ‘서비스업의 성장요인과 생산성’(박지원 KDI 전문연구원) 제하의 논문 두 편이 수록
 - ‘특집’은 「2013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」에서 발표된 논문 중 세 편을 선별하여 재구성함.
 - ‘경제성장, 일자리 창출,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혁신’(에르베 마뜨 프랑스 에섹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학장)
 - ‘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혁신전략과 그 유형’(알리스테어 놀란 OECD DSTI 수석정책분석가)
 - ‘서비스 혁신을 통한 성장: 글로벌 서비스 혁신의 정책 분석과 주요 성과’(야리 쿠시스토 핀란드 바사대학교 SC-리서치 소장)
 - ‘통계플러스’에서는 ‘서비스업 자영업자의 창업 특성과 ‘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추이’에 관해 집중 조명

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기술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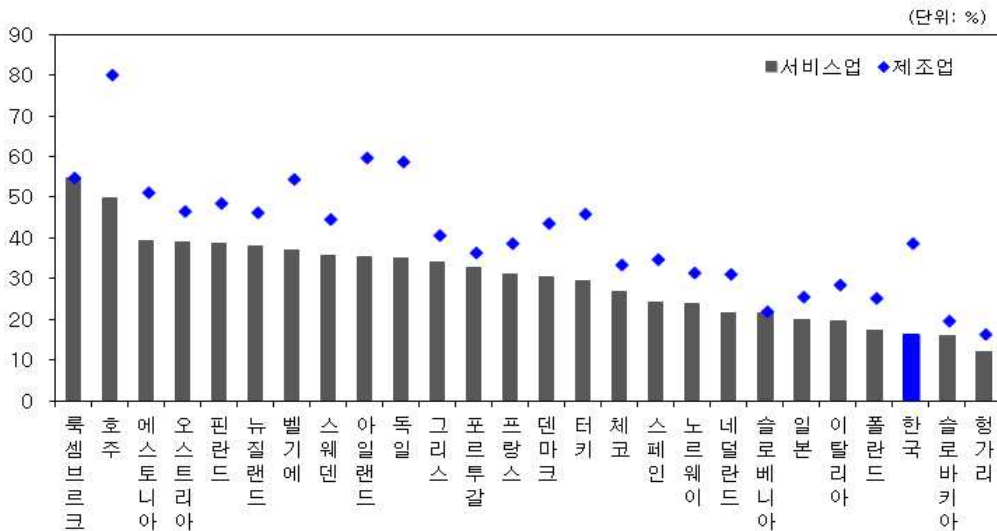
김기완 KDI 연구위원

-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기술혁신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함.
 - 서비스 업종별로 상이한 기술혁신 활동을 유형화해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.
- 과거에는 제조업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적 틀로 서비스 혁신을 연구하였으나,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혁신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
 - 제조업과 차별화되는 서비스 혁신의 특징은 서비스 업종의 다양성에 따른 혁신활동의 이질성, 강한 고객지향성, 비기술혁신(non-technological innovation)의 중요성, 높은 외부 정보원천에의 의존성 등임.
- 업종별로 상이한 특징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서비스 혁신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존재함.
 - Evangelista(2000)에서는 혁신활동 유형에 따라 서비스업을 '과학기술(S&T) 기반 서비스', '기술 자문', '기술 이용자', '인터랙티브/IT 기반 서비스' 등 네 가지로 분류함.
 - 이러한 서비스 혁신의 유형화는 상이한 서비스업의 혁신활동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
 - 예를 들어 '기술 이용자' 유형에서는 기존 지식이나 기술의 소비가 중요한 반면, '기술 자문' 유형에서는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·제공이 중요할 수 있음.

□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혁신밀도¹⁾는 19.7%로 제조업(49.2%)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업종별로도 상당한 편차²⁾를 보임.

- 서비스업에서 혁신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정보처리업(44.7%), 연구개발업(46.9%), 영화/방송업(27.5%) 등임.
-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혁신밀도가 낮은 것은 다른 OECD 국가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.
- 비기술혁신이 서비스업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통념과 달리, 제조업에서도 비기술혁신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이 결과는 전반적인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마케팅 혁신 등 비기술적 혁신활동 또한 중요함을 시사

[그림 4]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혁신밀도 국제 비교(2004~06년)



주: 뉴질랜드와 호주는 2006~07년의 데이터.
 자료: 김기완·윤유진(2010), p.8; 원 자료는 OECD(2009)에서 가공.

1) 조사시점 이전 3년간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기업의 비율
 2) 제조업부문(2005) 및 서비스업부문(2006) 기술혁신조사 분석 결과

□ 선행연구의 서비스 혁신 유형화를 적용해 살펴본 결과, 우리나라 서비스 혁신 유형 간 차이는 크지 않음.

- 유형별로 기술·비기술혁신 활동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,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혁신활동을 보이는 '과학기술기반 서비스'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혁신활동이 저조

[표 2] 서비스 업종의 유형별 혁신밀도

(단위: %)

	기술혁신	비기술혁신	전체 혁신
제조업 전체	49.1	47.1	57.5
서비스업 전체	19.7	28.9	34.9
과학기술기반 서비스	47.5	49.9	60.1
기술 자문	21.3	27.3	37.6
기술 이용자	12.1	22.2	26.3
인터랙티브/IT 기반 서비스	18.8	32.4	37.5

주: 모수는 표본에 포함된 전체 기업 대상임.
 자료: 김기완·윤유진(2010), p.44; 원 자료는 KIS-2005 및 KIS-2006를 기초로 분석함.

□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혁신 성과 창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개발투자액으로, 서비스업의 혁신활동도 정형화된 연구개발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

- 혁신성과로는 서비스혁신, 공정혁신, 특허출원 여부가 사용되고, 혁신활동의 결정요인으로는 기업규모, 연구개발투자액, 업종 시장상황, 대외지향성 등이 고려됨.
- 기업 규모에 따른 혁신 성과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, 기술집약적인 벤처기업일수록 혁신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았음.

□ 서비스부문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기업들의 연구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

- 현 정책지원체계 하의 정형화된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보다는 넓은 관점에서 혁신을 정의, 서비스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식별·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
-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, 개별 서비스 업종의 차별성에 근거한 정책 수단을 병렬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부문 중립적인(sector-neutral) 혁신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
-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서비스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시장기제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
 - 대표적인 예로 진입규제의 완화·철폐, 대외개방이나 지식재산권(IPR) 제도정비 등 혁신친화적인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들 수 있음.
-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은 기술추동(technology-push) 측면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어, 향후에는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 측면의 정책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 - 공공·사회서비스의 아웃소싱을 통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서비스기업의 혁신조달(innovation procurement)을 적극 활용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

[이슈분석 2]

서비스업의 성장요인과 생산성

박지원 KDI 전문연구원

-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부문별 성장요인과 생산성 변화의 특징을 분석함.
 - 부가가치 성장회계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, 서비스업의 유형별로 1991~2010년 기간 동안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,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를 비교함.
 - 서비스업은 유통, 생산자, 사회, 개인서비스 등 4개 유형으로 분류
- 분석기간 동안, 제조업의 생산성은 증가해온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2000년 이후 다소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.
 -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노동 및 자본의 요소투입 기여율을 상회함.
 -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에도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했으나 감소세는 2000년대 들어 크게 둔화됨.

[표 2]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가가치 성장률의 요인별 기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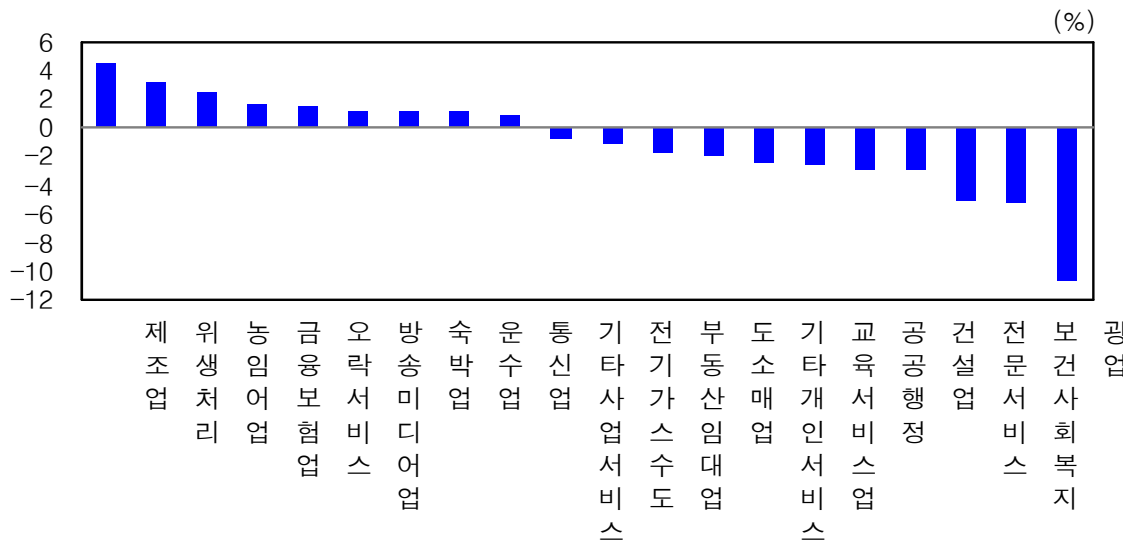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%p)

산업	기간	부가 가치	자본 투입	노동투입	노동의 양		TFP
					노동의 양	노동의 질	
제조업	1991~1995	7.9	4.2	0.2	-0.3	0.5	3.5
	1996~2000	7.6	4.5	-1.1	-1.6	0.5	4.3
	2001~2005	6.4	2.9	0.1	-0.5	0.5	3.5
	2006~2010	7.2	2.0	0.6	-0.1	0.7	4.6
서비스업	1991~1995	7.4	6.1	3.3	3.1	0.1	-2.0
	1996~2000	3.9	4.1	1.6	1.2	0.4	-1.8
	2001~2005	3.8	2.8	1.7	1.3	0.4	-0.8
	2006~2010	3.0	2.3	1.4	0.4	1.0	-0.8

□ 서비스업 내에서도 업종 유형에 따라 성장요인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.

- 유통 및 사회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, 생산자 및 개인서비스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폭이 축소되거나 증가함.
- 2000년 이후 유통 및 사회서비스업에서 각각 자본과 노동투입 증가율이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의 감소세가 확대됨.

[그림 1]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(2006~10년)



□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³⁾은 제조업에 비해 저조하지만 증가세를 유지,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증가율이 상승함.

-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 이후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7%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임.
- 생산자 및 개인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2000년 중반 이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상승
- 반면, 사회서비스업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.

3) 노동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의 상대적 비율로서, 총근로시간(취업자수×근로시간)을 노동투입으로 간주하여 측정한 시간당 노동생산성

□ 그러나, 노동의 질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⁴⁾은 둔화추세를 보이는 등 노동의 질 반영 여부에 따라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가 달라짐.

○ 노동의 질 변화를 반영하여 측정된 노동생산성이 노동의 양(총근로시간)으로 측정된 노동생산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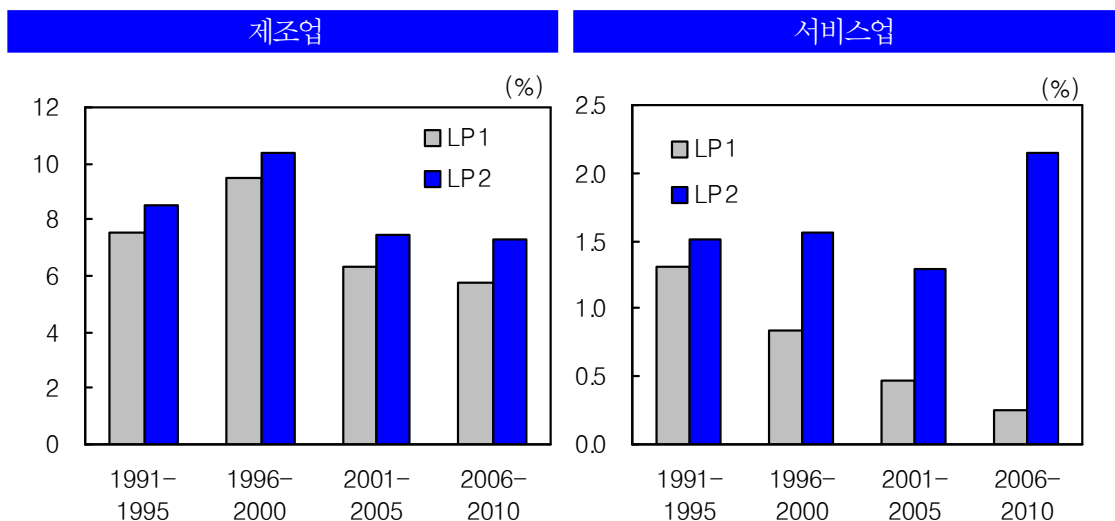
- 노동의 질적 향상을 노동투입의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○ 제조업에서는 두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대체로 일정했으나,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의 질적 향상이 빠르게 진행된 2000년대 후반에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됨.

- 서비스업과 같이 노동력의 구성변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산업에서의 생산성은 체계적으로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.

-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의 감소폭은 당초 추정된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.

[그림 3]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



주: LP1은 노동의 질 변화가 반영된 노동생산성, LP2는 노동의 양으로 측정된 노동생산성을 나타냄.

4) 노동의 질 변화가 반영된 노동서비스(총근로시간×노동의 질 지수)를 노동투입으로 간주하여 측정된 노동생산성이며, 노동의 질 지수는 노동의 성별, 학력, 연령 구성의 변화를 지수화한 것임.

- 생산성 추정 결과를 종합해보면, 사회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.
-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식기반 업종,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, 교육서비스업 등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서비스업 자영업자의 창업 특성

박지혜 KDI 전문연구원

- 본 연구에서는 2013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」 자료를 이용,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창업 관련 특성을 분석함.
- 자영업자의 창업년도 분포를 살펴 보면,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2007년 이후 사업을 시작한 반면, 제조업의 약 70%는 2007년 이전에 창업함.
-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평균 사업지속기간⁵⁾은 제조업에 비해 짧으며, 특히 숙박·음식점업, 교육서비스업의 사업지속기간이 짧게 나타남.
 - 서비스업의 평균 사업지속기간은 8년 11개월인 반면, 제조업은 12년임.

[표 1] 업종별 평균 사업지속기간

	비농 전산업	제조업	서비스업	도소매	운수	숙박·음식	교육	협회 및 개인
평균 사업지속기간	9년 5개월	12년	8년 11개월	10년 6개월	10년	6년 10개월	5년 7개월	10년

자료: 통계청, 2013년 8월 「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」.

5) 사업지속기간은 '현재 시점-사업시작 시점'으로 산출했으며, 도중에 사업이 소멸한 경우는 배제되어 통상적인 사업체의 생존기간과는 차이가 있음.

□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규모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'5백만원 미만'이 가장 많았음.

- 창업자금 규모가 '3억원 이상'인 경우는 제조업에서 10.4%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, 서비스업에서는 2.1%에 불과
- 도소매업과 운수업의 창업자금 규모는 '5백만원~2천만원 미만'이 각각 28.5%, 44.6%로 가장 많고, 숙박·음식점업은 '2천만원~5천만원 미만'이 35.4%로 가장 많음.

[표 2] 신규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규모

	비농전산업	제조업	서비스업					
				도소매	운수	숙박·음식	교육	협회 및 개인
5백만원 미만	31.5	35.7	31.9	17.9	2.4	10.8	78.5	52.5
5백만원~2천만원 미만	22.7	28.9	22.4	28.5	44.6	16.1	6.5	18.6
2천만원~5천만원 미만	20.1	14.8	20.3	22.1	24.0	35.4	5.9	12.4
5천만원~1억원 미만	19.6	6.6	19.5	21.9	29.1	30.2	8.1	9.4
1억원~3억원 미만	3.7	3.7	3.8	8.4	0.0	5.1	0.9	2.7
3억원 이상	2.4	10.4	2.1	1.2	0.0	2.3	0.0	4.5
전 체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

자료: 통계청, 2013년 8월 「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」.

□ 신규 자영업자의 창업자금은 주로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조달되는 경우(62.3%)가 가장 많았고,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도 각각 69.1%, 61.8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- 한편, 은행 및 보험회사에서의 대출이 주된 자금조달 방법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, 복수 응답을 고려하면 제조업에서 40.6%, 서비스업에서 26.7% 수준을 나타냄.
-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승계 또는 무자본 창업(21.8%)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제조업(6.4%)에 비해 크게 나타남.

- 최근에는 자영업 창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, 창업자금 규모 및 조달방법 등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.
-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업 창업지원 시스템이 요구됨.